

'배추 대란' 시장서도 1포기 1만2000원

반찬가게·식당·병원 등 김치담기 포기 물량확보 비상...김장철 '김치파동' 우려

배추 1포기 값이 1만2000원까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양념김치를 판매하는 반찬가게들은 아예 김치 판매를 포기하고, 일반 소비자들은 직접 김치를 담가 먹는 것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포장김치를 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배추 대란'을 방불케 하는 이 같은 상황은 김장철인 11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김치파동'까지 우려되고 있다. ◇금(술)치된 배추 1포기에 1만 2000원=28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가격정보에 따르면 배추 상품 1포기

값이 광주 대인시장에서 1만2000원에 거래됐다. 지난 24일 대인시장에서 8000원에 판매됐던 것이 사흘만에 50%나 폭등한 것이다. 또 한 달 전 4000원에 비하면 세 배나 뛰었으며, 1년 전 3000원 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배추 뿐 아니라 김장 재료인 마늘(1kg)도 1년 사이 138% 올라 1만원에 거래됐으며, 지난해 이맘 때 2000원이던 살 수 있었던 대파(1kg)도 6000원으로 200%나 오른 상태다. 무(1개) 같은 기간 166%가 올라 4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채소류 가격이 치솟으면서 광주신세계 이마트도 1포기에 6450원이던 배추를 29일부터 70~80%가량 인상에 1만1000~1만2000원에 판매하기로 했다. 4480원에 판매중인 대파(1단)도 1000원 올라 5480원에 내놓기로 했으며 마늘(500g)은 일주일 전부터 1500원 인상한 5080원에 판매중이다. ◇반찬가게, 식당, 병원까지 '김치파동'=배추를 비롯해 대파, 마늘 등 김치 재료로 쓰이는 채소들까지 가격이 치솟자 김치 담기를 포기하는 곳이 늘고 있다. 동구 학동에서 반찬가게를 운영중인 이만수(48)씨는 양념김치 판매를 포기할 생각이다. 이씨는 "배추를 비롯해 대파, 마늘 등 양념채소가 1년 사이 2배 이상 올라 양념배추 1포기를 1만6000원에 팔

아도 남게 없다"며 "배추 값이 계속 오르면 더이상 김치를 팔수 없다"고 말했다. 서구 치평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 김모(55)씨는 "배추김치 대신 깍두기나 다른 김치류를 내놓고 있지만 양념채소류까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재료비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D병원 식자재 구매업무를 맡고 있는 최모(40)씨는 "지금까지는 급식용 김치를 담갔지만 이제부터는 포장 김치를 주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장김치 가격 10% 가량 상승할 듯=배추값 폭등으로 포장김치 판매가 급증하면서 김치제조업체들은 앞다투어 구매에 나서고 있지만 공급 부족으로 인한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지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60%까

지 줄면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배추가격 폭등이 계속될 경우 적자폭이 커지기 때문이다. 해남화원농협 김치가공공장광주영업소 관계자는 "주분량이 예년에 비해 20%가량 늘었지만 배추 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CJ제일제당과 대상 등 포장김치업체들은 내달 중순께 판매가격을 10%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CJ의 반찬 브랜드 '하선정' 관계자는 "평상시 배추가격보다 수 배를 더 뛰게 배추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8월 까지 누계 매출이 20% 올랐지만 수익은 되려 악화되고 있어 가격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F1 경주용 차량 멋지죠? 28일 광주신세계 백화점이 다음달 22일 영암에서 열리는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에 참가할 '르노 F1팀'의 경주용 차량을 전시했다. 이번 행사는 30일까지 진행되며 2011년형 뉴 SM5 시승이벤트도 함께 열어 시승고객을 대상으로 신세계상품권(5000원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제공>

건강 위해 먹는 건강기능식품 복용후 부작용 해마다 늘어나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고 나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접수건수는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37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6년 16건, 2007년 96건, 2008년 107건, 2009년 116건, 2010년 상반기 43건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2009년 한 해 동안 신고된 부작용만 보면 구토·변비·설사·위

염 등 위장장애가 1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려움·두드러기·여드름 등 피부장애도 66건이나 됐다. 이밖에 가슴불쾌, 복부팽만, 무기력 증후군 등이 42건, 두통·어지러움·경련 등 뇌신경 및 정신관련 증상으로 32건이나 보고됐다.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2006년 753건, 2007년 678건, 2008년 813건, 2009년 762건, 2010년 6월 691건 등으로 줄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8월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

'인상 신호'에는 의견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지난 달 기준금리 동결은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이 28일 공개한 지난달 12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의사록을 보면 회의에 참석한 금통위원 6명은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동결하는 데 모두 찬성했다. 다만 의장인 김중수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5명 가운데 3명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되 시장에 '인상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달리 나머지 2명은 속도조절 필요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면서 견해를 드러냈다. 익명으로 표기된 한 금통위원은 "현재의 기준금리는 아직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으며, 다른 금통위원도 "지난달(7월)에 이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더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른 금통위원은 2%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부동산시장 침체, 국내외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당분간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금통위원 5명의 의견이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총론'에서는 일치했지만 향후 통화정책 방향이라는 '각론'에서 다소 엇갈린 것과 달리 한은 집행부는 물가 상승 압박과 경기 상승세 등을 근거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연합뉴스

시장 금리 하락추세 지속 은행들 뒤통에 인하 동참

최근 들어 시장 금리가 하락추세를 이어가자 일부 은행들이 뒤통에 경기예금 금리 인하에 동참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 1년 만기 '큰만족실세정기예금'의 금리를 이날 종전보다 0.20%포인트 내렸다. 이로써 이 예금의 금리는 연 3.85%에서 연 3.65%로 조정됐다. 6개월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도 연 3.25%에서 연 3.15%로 0.10%포인트 인하됐다. 농협이 이날 들어 정기예금 금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은행도 1년 만기 '자유자재정기예금'의 금리를 종전 연 3.11%에서 이날 연 3.08%로 소폭 내렸다. 기업은행은 지난 24일 1년만기 '실세금리정기예금'의 영업점장 전결금리를 종전보다 0.10%포인트 인하했다.

가계빚 눈덩이...IMF 이후 최고 수준

금융회사 부실화 가능성

가계부채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상환 능력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리 상승으로 이자비용이 증가할 경우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가계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금융회사의 부실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신용평가회사인 한신정평평가 최근 가계부채 현황과 금융업권별

리스크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순상환능력(가계 소득에서 세금이나 생활비 등을 지출하고 남은 저축 가능금액)대비 가계부채 배수는 7.2로 나타났다. 이는 산술적으로 따질 때 7년 넘게 모아야 현재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를 다 갚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가계부채 배수는 2003~2005년 6.4, 2006년 6.8, 2007~2008년 6.7, 지난해 7.3 등이었다. 외환위기에서 벗어난 이후 지난해에 이어 최고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연합뉴스

www.geumsoojang.com

내집같은 편안함!

광주에는 **금수장관광호텔**이 있습니다.

4만원부터

예약문의: 0621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 없습니다. 4-5만원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편리합니다. 광주역에서 도보 7분, 광주고속터미널 차편 15분 거리 전남대, 조선대, 교대, 아시아문화전당(구도청), 예술의거리, 충장로 등 시내 주요 거점이 10분거리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인접한 객실 Free Wifi, 비즈니스센터, 한식당, 커피숍, 와인방, 연회 등 다양한 부대시설

편안합니다. 한밤 한밤 직접 케머어 정성껏 준비하는 깨끗한 침구 가족, 여행객, 비즈니스, 출장객의 주요 고객

광주MBC 문화탐방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기획여행 신고업체

삼국지 중원의 땅 중국의 古都 하남성으로...
세계 유네스코가 지정한 찬란한 문화유산의 총 집합체

10월 16일~11월 13일 (매주 수, 토) 단, 9회 한정

무안 ↔ 소림사 직항 직세기

구분	상품명	요일	출발날짜	상품가(원)
관광	소림사 / 운대산 (운문석굴) 4일	수	10/20, 27	699,000
	소림사 / 태항산 (운문석굴) 4일		11/3, 10일	799,000
	소림사 / 서안 진시황병마용 (운문석굴) 4일			859,000
	소림사 / 운대산 / 개봉포정천 (운문석굴) 5일	토	10/16, 23, 30	749,000
	소림사 / 서안 진시황병마용 / 양귀비의 화장지 (운문석굴) 5일		11/6, 13일	899,000
트레킹	송산 (송림사) / 운대산 (운문석굴) 트레킹 4일	수	10/20, 27	799,000
	그랜드 캐년 태항산 대협곡 트레킹 4일		11/3, 10일	799,000
	화산 / 송산 / 운대산 중주 트레킹 5일	토	10/16, 23, 30	899,000
태항산 / 운대산 중주 트레킹 5일	11/6, 13일		899,000	

▶ 포함 사항 : 국제선왕복항공료, 무안출항차, 전경보현료, 중국현지 공항세, 일정에 따른 현지 특급 or 일급호텔 (2인실), 식사비, 관광지입장료, 1일여행자보험, 송산케이블카왕복(\$30 포함), 사바사브회, 삼겹살회, 발발사지회 (팀\$500), 서안상품왕복특급차비

▶ 불포함사항 : 중국단체비자비용 - 1인당 18,000원 (관용여권, 외국여행권, 개인비자필요) / 전일 가이드 및 기사님 - 1인당 30,000원 (1인당) / 5일 40,000원 (1인당) / 유류할증료 - 54,000원 1인당 / 개인경비 및 현지에서 진행되는 선택관광비용

※ 어린이는 성인요금과 동일합니다.

광주MBC 문화탐방 전세기 사무실 [문의전화] 0621226-6070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양국정부인가조건)

◎ 렌드뱅크여행사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42-10